



현대성우메탈 임금저하, 외주화 투쟁으로 저지하자!

현대성우메탈 본사 연대의 힘으로 뒤덮어

5월 30일(수) 지부 확대간부, 유성기업영동지회 파업 조합원, 현대성우메탈 조합원 등 200명이 넘는 동지들이 서울 현대성우메탈 본사를 뒤덮었다. 모인 조합원들은 지부 결의대회에 참가하며 강제 전환배치로 노조파괴 공작을 벌이며, 7월 노동시간 단축을 빌미로 임금 저하와 외주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대성우메탈을 강력히 규탄했다. 면담이 밤 늦게까지 길어졌으나 집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은 전혀 이탈하지 않고 밤 10시까지 자리를 지키며 투쟁을 이어갔다.

불법파견 피하기 위한 1공장 외주화와 임금 저하

사측은 집회 전날, 교섭대표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현대성우메탈노동조합(1노조)와 근로시간단축위원회를 진행하며 계획안을 공개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모두 1공장으로, 정규직 노동자들은 모두 2공장으로 배치하고 노후된 1공장 설비를

교체하기 위한 설비투자를 한다는 계획이다. 거기에 2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은 현재의 주야 맞교대를 3조 2교대 형태로 전환해 임금을 저하시키고 주52시간 위반을 피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이 아니라 그저 불법파견을 피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

면담까지 일방적으로 파기, 더 큰 투쟁 벌이겠다

5/30일 본사 상경투쟁에서 성사된 면담은 31일, 6/1일 면담으로 이어졌다. 사측은 대화 의지를 거듭 밝히며 면담을 통해 해결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6/1일 면담에 일방적으로 불참하며 본색을 드러냈다. 지부는 사측의 시간끌기에는 더 큰 투쟁으로 대응할 것이다. 이 사태는 대화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사측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본사 상경투쟁에서 폭발된 힘이 충주공장에서 터져나올 것이다.

노동자살인을 멈춰라! 노동열사 추모대회

6월 9일(토) 노동열사 추모대회와 민족민주열사 범국민추모제가 열린다. 그동안 자본과 권력에 의해 목숨을 잃은 수많은 열사들의 뜻을 기리며, 그 뜻을 이어 투쟁을 결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지부는 2016년 유성기업 한광호 열사를 눈물로 보냈다. 현대차-유성기업의 노조 파괴로 인해 목숨을 잃은 한광호 열사를 생각하며, 다시는 자본의 이윤과 노조파괴로 노동자가 목숨을 잃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결의를 다져야 할 때다. 아직도 노조파괴로 고통받는 동지들이 우리 지부 안에도 많다. 복수노조 사업장 동지들이 승리할 때까지 열사의 뜻 이어받아 투쟁하자.

* 주요 일정 *

- ☐ 노동자건강센터 설립 촉구 기자회견
6/4(월) 11:30 청주노동지청
- ☐ 7차 중앙교섭 및 중앙집행위원회
6/5(화) 14:00 대구시니어체험관
- ☐ 8차 지부교섭
6/7(목) 15:00 한온시스템
- ☐ 노동열사 추모대회 및 범국민추모제
6/9(토) 13:30 청와대사랑채앞
15:00 서울시청광장